# ‘민족시인’ 문병란 삶·문학 기린다

## 14일 광주 동구청서 문학제
## 이시영시인 문병란문학상 수상
## ‘서은문학’ 발간 출판기념회도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고비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문병란의 ‘희망가’ 중에서)

서은(瑞隱) 문병란(1935~2015) 시인의 삶과 문학을 기리는 문학제가 열린다.

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이사장 황일봉)는 오는 14일 오후 4시 광주 동구청 대강당에서 제2회 문병란문학제를 연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문학제는 민족시인 문병란 시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의 사상과 발자취를 기억하는 데 조점을 두고 있다.

이번 문학제는 ‘서은문학출판기념회’(통권 제5호) 출간기념회, 문병란문학상 시상식, 시낭송회, 시극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짜여졌다.

이시영 시인

홍영숙 서은문병란연구소 운영위원 사회로 문학제가 진행되며 황일봉 이사장 인사말, 임원식 광주예총 회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등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제2회 문병란문학상 수상자인 이시영 시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구례 출신인 이 시인은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조가, 월간문학 제3회 신인작품 공모에 시가 당선돼 등단했다. 정지용문학상, 현대불교문학상, 백서문학상, 만해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하동’, ‘긴 노래 짧은 시’ 등 다수의 작품집을 펴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허형만 시인은 “이시영 시인은 1974년 자유실천문인협회의 일원으로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여러 차례 연행, 구금, 조사 등을 당했으며 창작과 비평사 주간 시절인 1989년 황석영 북한 방문기 게재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며 “선정위원회에서는 민족시인 문병란 선생님의 문학정신과 인간적 면모에 가장 맞닿아 있다고 인정한 이시영 시인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조선대 서석홀에서 열린 문병란문학제 모습. 〈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 제공〉

이어 이시영 시인의 답사, 차상영 시낭송가의 시낭송이 진행된다. 아울러 문병란특별상 수상자 신현영 시인에 대한 시상 및 축사도 펼쳐진다.

‘서은문학’ 발간 출판기념회에서는 조선의 문예창작반 지도교수의 격려사와 시낭송이 이어진다. 전국 문병란 시낭송대회 대상 수상자인 박윤경의 ‘다시 불러 보는 그날의 노래’, 금상 수상자인 이병숙의 ‘죽순밭’ 낭송이 예정돼 있다.

2부는 화합의 장으로 공연이 펼쳐진다. 우리춤 나르샤 공연단의 ‘직녀에게’ 공연, 박애정의 ‘호수’ 외 연주와 시낭송이 펼쳐진다. 전라도를 주제로 한 시극 ‘전라도 뻐꾸기’는 도이지, 양기준, 이미례, 이연례, 지희순 등이 출연해 시와 극이 어우러진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마지막으로 소리샘 백순 외 10명이 펼치는 관현악 연주 ‘그리운 사람끼리’ 외 2곡의 관현악 연주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현대인의 불안한 표상 등 56편 수록

## 최류빈 시인 ‘만만계’ 프로젝트 ‘유리테라스를…’ 출간

“척박한 지역 문화환경 속에서 창작활동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입니다. 그러나 지역이 곧 중앙문단이라는 믿음과 아울러 청년들에게 용기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대생시인’과 ‘청년시인’으로 불리는 최류빈〈사진〉 시인의 작품집 ‘유리테라스를 소개합니다’가 천년의 시작 출판사 시작시인선으로 출간된다.

이번 시집 발간은 광주문화재단의 2019문화예술펀딩프로젝트 만세만세 만(萬)만(萬)계(만만계)에 참여해 진행됐다. 대학에서 생물공학을 전공한 20대 공학도가 중앙문단이 아닌 지역에서 작품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최 시인은 지난 2017년 전남대 공과대학 생물공학과 재학 시절 ‘간빙기 밥통’이라는 작품으로 시 전문지 ‘포엠포엠’으로 문단에 등단했다. 지난해 펴낸 시집 ‘장미 氏, 정오에 피어줄 수 있나요’에서 “공대생 특유의 범경계의 언어, 사실에 대한 문학적 분석 등이 특징적이라는 문단의 평”이 따랐을 만큼 주목을 받았다.

이번 작품집에도 유리테라스로 대변되는 현대인의 불안한 표상과 경쟁, 소시민적 감각과 미시적-거시적 사유를 녹아낸 56편의 시가 수록될 예정이다. 오늘의 시적 흐름과는 별개로 시인은 그만의 독특한 시각을 견지한다. 특히 193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시풍, 퇴폐적 미학 속에서도 희망을 착종하고 탐닉하는 면모를 엿보게 하는 작품이 주를 이룬다. 최 시인의 시 쓰기는 그동안 인문학이나 문예창작을 전공한 이들의 전유물로 생각됐던 일반의 인식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 누구나 재능만 있으면 전공과 무관하게 시인이나 소설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는 “시를 지우면 흔들리는 한 사람의 평범한 청년일 뿐이다. 예전과 달리 시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때문인지 시와 시인에 대해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를 멀리 있는 무언가가 아닌 가볍지만 때로는 묵직한 중력을 구가하는 것 정도로 생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남대 ‘BK21사업단’ 한양대 박기수 교수 초청 강연

스토리텔링의 구조와 유형, 트랜스미디어 특징 등을 아우르는 강연이 열린다.

전남대 ‘BK21플러스 지역어 기반 사업단’(단장 신해진 국문학과 교수)은 13일 오후 2시 전남대 인문대2호관 408호에서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스토리텔링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그리고 기획’을 주제로 개최될 이번 초청 강연 강사는 박기수 한양대 교수.

박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스토리텔링의 유형과 특징,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개념 및 구조, 가치 있는 즐거운 체험과 기획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박기수 교수

한양대 국제문화대학 문화콘텐츠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인 박 교수는 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 창의융합교육원장 등을 맡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획창작 아카데미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문화평론가와 문학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내년 40주년 5·18…오월문화제로 하나되다

## 17일 광산구 빛고을문화관
## 안치환·박강수 출연

2019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 5·18 40주년을 준비하면서 5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오월문화제’가 열린다.

10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재단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7시 광주시 광산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하나되는 오월, 다시서는 오월’을 주제로 2019년 오월 문화제가 개최된다.

이날 문화제는 2019년 한해 오월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오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한해동안 지치지 않고 달려온 모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제에는 극단 토박이의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담은 오월창작극 ‘나와라 오바’ 공연을 시작으로 오월어머니회 합창단, 안치환, 이엔보이스, 박강수의 노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박강수

안치환

이날 행사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교육감, 5월단체 및 광주시민사회의 대표 등이 참석해 한해동안 오월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한 모두의 노력을 격려하고 40주년을 맞는 5·18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시각장애인들이 펼치는 어울림 한마당

## 오늘 ‘나래야(夜)’ 공연

광주지역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형수)은 개관 10주년을 맞이해 ‘제5회 시각장애인이 만들어가는 나래야(夜)’를 개최한다. 12일 오전 10시 30분 웨딩그룹위더스 5층 그랜드볼룸홀.

행사는 광주시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한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나래야’는 날개의 순수 우리말 ‘나래’와 한자어 밤 ‘야(夜)’의 합성어로 광주시시각장애인들이 한 해 동안 땀 흘려 맺은 결실들을 한 자리에서 펼치는 밤을 뜻한다.

세상의 빛을 잃은 시각장애인의 어려운 환경을 문화와 예술 활동으로 극복하고,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으며 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다.

공연은 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시각장애인 ‘캄보밴드’와 ‘하하하 하모니카팀’, ‘짐볼드럼팀’, ‘통기타 연주팀 2M’의 공연과 개관 10주년 기념식, 송년 한마당 순으로 진행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내년 1000명 추가 선발

세대 간 소통과 아이들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이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늘어난 현장 수요를 감안해 내년에는 1000명의 이야기할머니를 추가로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활동 수당도 회당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5000원 처음 인상된다. 또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활동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선도 70세에서 80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시작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어린이집에 할머니가 방문해 아이들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시작됐다. 아이들과 노년층 간 세대의 소통을 만드는 ‘생활공감형 정책’으로 인기를 끌었다.

올해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의 날’가 지난 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됐으며 졸업생 13명이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28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